“생업은 고사하고 설 무대도 없다” 광주 농악 맥 끊기나

광주시 등록 풍물패 광산농악·지산농악 등 불과 ‘쇠락의 길’
계승 의지 있어도 공연기회 적고 유지 힘들어 젊은 층 외면
“초등생 방과후 수업서도 실종…농악 접할 기회 점점 줄어”

광주지역 농악 풍물패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청년들의 무관심에 풍물패 대를 이어온 대학가 풍물패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남아있는 지역풍물패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풍물놀이패는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해체됐다.

조선대 풍물놀이패는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과대별 1000명 넘게 가입해 풍물패연합 수만 수천명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학교 캠퍼스에서 운동권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이뤄졌던 대학 풍물놀이패의 역사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풍물놀이가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되지 않고, 직업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에서 풍물패 활동이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학내 캠퍼스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된 것도 한 이유로 꼽히도 있다.

조선대 풍물놀이패 회장은 “풍물놀이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매년 신입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등록된 농악 풍물패도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과 마륵동, 칠석동 등 광산지역 농악인이 모여 1988년부터 활동해온 ‘광산농악보존회’는 광주지역 농악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이 없고 공연 기회조차 작아 보존회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풍물패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20년 10월 광산구에 전수교육관을 개관했음에도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 전통을 이어갈 이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임방울 국악제 농악부분 대상을 거머쥐며 실력을 인정받은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임방울 국악제 외에도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국대회에서도 수상했을만큼 실력이 있지만 연습실을 마련하지 못해 매번 학교 운동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부족이 큰 문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호준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 사무국장은 “매 연습 때마다 50여명의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연습장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이 없다보니 연습 때 수십명이 함께 밥 한끼 먹는 것도 버겁다”며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정 농악단 외에는 실력이 있고 전통농악 계승 의지가 있어도 유지가 힘들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나마 있던 젊은 층의 이탈도 많다는 것이 풍물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농악단의 회원들은 대부분 40~50대로, 수입이 많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탓에 젊은 층의 이탈도 적지 않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학교나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시립창극단원으로 활동하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는 직업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자리도 많지 않아 결국 생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실력있는 농악인들은 광주를 떠나 수도권에 정착한다는 것이 장 사무국장의 말이다.

광주시 북구 용두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지산농악’의 정영을 대표는 “이제 농악단이 설 수 있는 무대조차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과거에는 행사나 축제에서 흥을 돋구는 농악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현재 농악단이 무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1~2번 뿐이고 행사의 흥을 돋는 역할도 이제는 농악단이 아닌 지역 가수 등이 꿰차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정 대표는 “몇 년 전만 해도 초등생 방과후, 수업시간에 농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공교육이 농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대부분의 방과후 학교가 컴퓨터 코딩과 같은 교육으로 대체돼 아이들이 농악을 접할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나만의 색 찾아라 25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나만의 색 찾기’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이 얼굴에 어울리는 컬러 진단 등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국 최다’

지난해 1303건…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1만 1286명

광주지역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11만 1286명인데 반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303건이 발생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중 가장 높았고 대전, 제주, 전남, 대구 순으로 고령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가 높았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전체 면허소지자는 총 95만5928명으로 11.6%(11만 1286명)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인데 반해 전남의 경우 전체면허 소지자 114만7138명 중 17.1%(19만5588명)가 65세 이상으로 전국에서 경북, 강원에 이어 3번째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았다.

4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17.3% 증가했다.

광주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20년 1000건, 2021년 1032건, 2022년 1089건, 2023년 1303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전남은 2020년 1950건, 2021년 1905건, 2022년 1903건, 2023년 2159건으로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7만 4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만5809건), ‘안전거리 미확보’(1만5078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8824건), ‘중앙선 침범’(6497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4770건), 기타(1만1742건) 등이다.

위성곤 의원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충장축제로 28일~10월 7일 금남로 교통 통제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최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7일 오전 7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부터 전일빌딩 245까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차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인근의 예술의 거리와 금남로4가 쥬얼리 거리는 10월 1~7일 교통이 통제된다. 충장로 1가 입구부터 풍남옥 인근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교통 통제 기간 동안 좌석02, 첨단09, 금호36, 운림51, 송정98 등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통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불편을 드린만큼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산후조리원 수 ‘전국 최하위권’

7곳 불과…비용은 수도권 수준

광주지역 산후조리원이 전국 최하위인 세종시 다음으로 적고, 비용은 수도권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전북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69곳 중 56%에 달하는 267곳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주 지역 산후조리원은 7곳(1.5%)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종 6곳(1.3%)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 적었다. 전남지역 산후조리원은 13곳이다.

특히 광주시 동구와 담양군 등 전남 14개 지역(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신안)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산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야하는 셈이다.

또 전남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광주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었다.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민간 산후조리원 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 지역이었다. 광주의 평균 조리원 가격은 2019년 225만원이었지만 2023년 370만원으로 4년 사이 64.4%가 올랐다. 지난해 기준 광주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2주간 일반실 이용 기준 700만원에 달했고, 가장 저렴한 곳은 192만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전남의 경우 평균 조리원 가격이 2019년 183만원에서 2024년 240만원 31.1% 올랐고, 가장 비싼 곳은 176만원, 저렴한 곳은 154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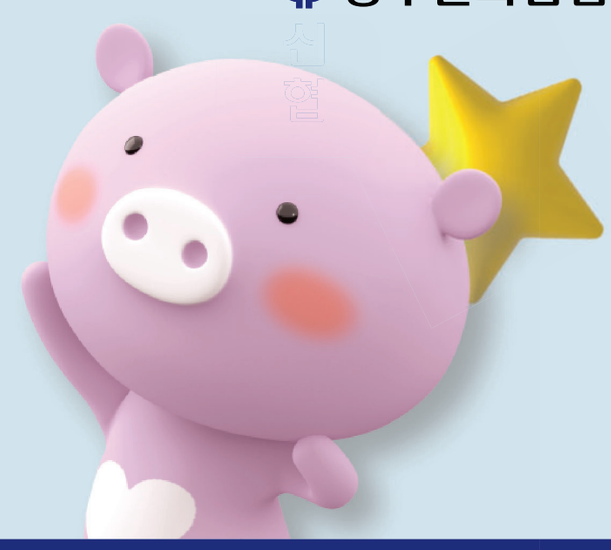
박희승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이 지자체에게 맡겨져 있어 지자체별 격차가 크다”며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